

HOME

예술과 디자인으로 생기를 찾은 에든버러 하우스 | 심표 같은 집 | 엘비어러스 호텔 | 대표 리빙숍 베스트 82



모던하게 재구성한 거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뉴타운에
위치한 18세기 조지안 하우스의 다이닝
룸. 집주인인 로디 머레이와 앤드루
키스가 본래의 건축 구조물은 살리면서
모던하게 재구성한 공간이다.
포토그래퍼 레이문(Moon Ray Studio)

과거에서 탄생한 모던 라이프스타일 예술과 디자인으로 생기를 찾은 에든버러 하우스

유럽의 오래된 역사가 아시아의 컨템퍼러리 문화와 만났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타운하우스는 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모던한 감성의 하우스로 재해석되었다.

에디터 안지나 글과 사진 레이문(Rei Moon) 스타일리스트 주앙 보텔로(Joao Botelho) 촬영협조 로디 머리(R. J Murray Design Limited), 앤드루 키스(Andrew Keith)

에든버러의 뉴타운에 위치한 고급 쇼핑 거리인 조지 스트리트를 지나 과거의 역사를 지닌 조지언 건축물에 들어서자, 그 규모가 말해줄듯 천장 높이가 5m가량 되는 웅장한 공간이 펼쳐진다. 스코틀랜드 조지언 시대로 잠깐 시간 여행을 떠난듯, 과거와 현재가 즐겁게 공존하는 곳이다. 18세기 중반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든버러는 새로운 도시 계획에 돌입했다. 조지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서쪽 끝인 살렛 스퀘어부터 동쪽 세인트 앤드루 스퀘어까지 웅장한 네오 클래식 양식의 조지언 건축물이 서 있고, 대부분 귀족이나 상류층의 소유가 되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지역 건축물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거대한 규모로 인해 주로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그중 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변형 사무실로 사용되던 한 건축물이,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축가 로디 머리(Roddy Murray)와 홍콩 럭셔리 패션 브랜드 화점 조이스(Joyce) 및 레인 크로포드(Lane Crawford)의 프레지던트인 앤드루 키스(Andrew Keith)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에든버러 중심에서 스코틀랜드 역사를 간직한 1830년대 조지언 건축물이 이제 사무실에서 모던한 삶의 공간이 된 것이다.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하우스의 구성을 벗어난 2층 거실. '모던 리빙'으로 재구성한 이곳은 앤드루와 로디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큰 창문을 통해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은 모던 가구와 컨템퍼러리 예술 작품으로 꾸몄다. 린지 아델만(Lindsey Adelman)의 조명 아래로 예로 사리엔의 커피 테이블과 파올라 나보네가 디자인한 암체어를 놓았다. 박서 러그스(Boxer Rugs)를 위해 로디가 디자인한 '맹갈린' 러그 위로 매슈 힐턴(Matthew Hilton)의 '헵번 소파'를 배치했다. 자연을 담은 그림의 쿠션은 모두 티머러스 비스티스 제품. 벽면에 건 강렬한 컬러의 작품은 그래피티 아티스트 JMR의 작품이다. 반대편 테이블 위에 놓은 램프는 페루초 라비아니가 카르멜을 위해 디자인했다. 그 사이로 로디가 아티스트의 삶 자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스코틀랜드 예술가 스티븐 캠벨의 작품을 걸었다.



조지언 건축물의 웅장한 입구. 원색의 컨템퍼러리 디자인 제품을 배치해 생기를 주었다. 레인 크로프트를 위해 루카 니체토가 디자인한 의자 옆으로 놀(Knoll)의 커피 테이블을 놓았다. 리드미컬한 패턴의 박서 러그스 러그와 싱그러운 옐로 컬러 캐비닛은 모두 로디머리가 디자인했다.

유럽의 뿌리와 아시아 문화의 만남

로디는 장교 출신 아버지 덕에 키프로스, 독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스쿨 오브 아트에서 건축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노먼 포스터의 홍콩 사무실에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 그는 홍콩 공항 등 거대한 건축물의 하부 구조 프로젝트 부분을 담당해왔다.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홍콩의 조지아르마니 헤드쿼터 건축을 진행하면서 로디는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RJ 머리 디자인 사무실을 설립했다. 그리고 홍콩을 위주로 유럽 등지에서 레지던셜 인테리어 작업을 주로 해온 그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주문 제작한 러그의 인기에 힘입어 러그 전문 브랜드인 박서 러그스(Boxer Rugs)를 론칭했다. 앤드루 역시 영국 오일 회사 셸(Shell)의 오일 탐사를 맡은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을 보르네오 섬에서 보내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를 경험했다.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을 받고 런던 킹스턴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한 그는 홍콩 G2000에서 남성 의류 디자인 디렉터로 경력을 쌓았다. 그러던 중 레인 크로프트에 합류하게 된 그는 현재 프레지던트 위치에서 레인 크로프트와 조이스 브랜드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직업상의 이유로 전 세계를 방문하는 그는 도시 여행에서 발견한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과 아시아 섬에서 마주한 원시 예술, 자연 풍경 등 다양한 문화에서 받은 영감을 로디와 함께 자신들의 삶이 담긴 공간에 표현한다.



전통적인 분위기의 1층의 리빙 룸은 시대를 넘나드는 제품을 혼합해 절충의 미학을 완성했다. 플라잉 상들리에, 왕백 체어, 베이스 월라이트는 모두 톰 디슨. 조지언 엔틱의 벽난로 위를 장식한 마블 북 홀더는 영국 럭셔리 홈웨어 브랜드 오름 홈(Aurum Home) 제품. 공간에 럭셔리한 무드를 더해주는 커피 테이블은 에이린 로더(Aerin Lauder) 제품이고, 그 옆으로 하이메 아온의 암체어를 놓았다.



햇살이 가득한 작은 다이닝 공간은 럭셔리 콘셉트로 꾸몄다. 티머렉스 비스티스의 컨템퍼러리한 '스네이크 스킨 다마스크' 벽지와 앤디크 상들리에가 과거 조지안 시대의 화려함을 표현하는 듯하다. 박서 리그스의 '몽델(Mondel)' 러그 위로 예로 사리엔의 마블 돌탑 테이블을 놓았다. 놀에서 주문 제작한 블루 컬러 의자가 공간에 유쾌한 컬러 포인트를 준다. 벽면의 램프는 조너선 애들러 제품.



18세기 조지안 하우스에 붙여넣은 모던 라이프스타일

200여 년 된 건물의 인테리어를 모던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추고 싶었던 로디는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1층에 부엌과 다이닝 룸, 2층에 침실과 거실로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공간의 구분을 완전히 뒤바꾸기로 했다. 특히 여행이 잦은 로디와 앤드루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침실과 욕실은 1층으로, 홍콩에서 경험한 아시안 스타일의 오픈 플랜 거실 겸 부엌은 2층으로 옮기기로 한 것. 손님과 가족을 위한 방과 욕실은 3층에 배치했다. 건축가 인 로디는 역사적 건축물의 실내 구조 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작업에 들어갔고, 수개월이 지나서 두 사람이 원하는 '모던 리빙'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데커레이션 작업에 들어간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스코틀랜드 문화를 공간에 심었다. "데커레이팅 과정은 유기적인 진화 과정이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조지안 시대의 뼈대 변경부터 시작해 모던 퍼니처와 컨템퍼러리 아트를 적용해 마무리까지 한 결과물은 우리조차 놀라울 정도였다." 스코틀랜드 디자이너의 패브릭, 아티스트의 작품을 배치하고 톰 디슨, 하이메 아옌, 파올라 나보네(최근 홍콩의 조이스 패션 부티크의 재구성 작업을 앤드루와 함께했다) 등 컨템퍼러리 디자이너에서 아르네 야콥센 등 북유럽 디자이너의 미드센트리 가구 등으로 채운 공간은 절충의 미학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로디와 앤드루가 말하는 '이탈리안 인스피레이션'을 담은 주방. 이탈리아에서 방문한 농장의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 다크 그린 컬러로 주문 제작한 가구에 마블 디테일의 가죽 커버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그 결과 그들이 원했던, 주방답지 않은 색다른 느낌의 공간이 탄생했다.





여행의 영감을 담은 디자인

“이탈리언 인스피레이션이었다.” 스코틀랜드에서 보기 힘든 컬러로 채색한 공간에 대해 로디는 이렇게 설명했다. 회색을 주로 선호했던 로디와 앤드루는 여행에서 보고 경험하며 얻은 영감을 이 집에 적용하고 싶었다고 한다. 밀라노의 디자인 전시 기간 중에 마주한 원색의 컬러와 패턴, 이탈리아 남부의 농장 하우스에서 접한 다크 그린 컬러의 부엌, 이뿐만 아니라 인도 여행 중 보았던 강렬한 파스텔 톤의 컬러까지. 기억 속에 잠재하던 색감은 리빙 룸에서 터키옥 컬러로, 침실에서 파스텔 핑크빛으로, 주방과 거실에서 농도가 다른 그린 컬러로 발현되었다. 이 집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 로디와 앤드루는 가족과 친구를 포함해 60여 명을 초대해 큰 파티를 열었다. 스코틀랜드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예술가인 찰스 레니 매킨토시가 아르누보의 화려함과 함께 ‘모더니스트 아이디어’를 처음 시도하고, 건축가 겸 산업 디자이너인 알바 알토가 유기적 모더니즘을 초기에 선보였듯, 로디 머리는 모더니즘과 함께 자신의 미적 감성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이 프로젝트에 실현했다. 수십 년 생기를 잃었던 조지언시대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며 오래된 가치는 보존하되 ‘예술과 디자인’으로 다시금 숨을 불어넣은 것이다.

1 2층 공간의 메인 컬러인 그린을 작은 게스트 화장실에도 적용했다. 인더스트리얼 느낌의 ‘오리지널 BTC’ 램프와 팔리핀에서 수공예로 제작한 거울로 장식한 공간에 영국 홈웨어 브랜드 버스터&핀치의 황동 소재 ‘머신&디퓨저 (Machined&Diffuser)’ 플레이트로 럭셔리한 향을 입혔다. 2 침실과 연결되는 욕실은 골드 컬러와 마블 소재의 전통 디자인에 컨템퍼러리한 느낌을 더했다. 애스턴 매슈스(Aston Matthews)의 울트라 베스와 함께 한스그로헤의 플로어 스탠딩 믹서로 하이엔드 욕실을 완성한 공간. 이스태블리시드앤선즈를 위해 실바인 빌런스(Sylvain Willenz)가 디자인한 ‘토치라이트(Torch Light)’로 컨템퍼러리한 무드를 주었다.

인도 여행 중 영감을 받은 소프트한 파스텔 톤으로 완성한 침실에는 RJ 머리 디자인(RJ Murray Design)이 제작한 클래식한 침대와 사이드 테이블을 놓았다. 인도에서 주문 제작한 캐시미어 러그 위로 크바드라트 원단을 새로 입힌 애그 체어가 모던한 느낌을 준다. 생테게에서 모터블을 얻어 디자인한 ‘아구아나 패브릭’ 커튼은 티머러스 비스티스 제품.

